

우영숙

▶ 토요 초대석 ... 11월 29일 방송분

홍(An) '토요초대석'..!

오늘은...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과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민주화운동의 한 복판에서,

또,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선두에 서 세셨죠.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여성환경연대와 미래포럼 으뜸지기로,

또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박영숙 님인데요...

전태일 문학상을 받은 김현아씨가 이 분의 삶을 취재해

책을 냈습니다. "박영숙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박영숙 이사장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인사

홍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젊어보이세요~! 평생 사회활동을 하셔서
나이 들어 보인 틈도 없었나 보죠?

박

..... 나이가 되려할수록 오히려. 건강은 건강할수록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홍

박영숙...이라고 하면, 청취자들 대부분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평민당 부총재로, 또, 13대 국회의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
을 거 같은데요...사실, 훨씬 전부터 공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1970년대 여성운동의 핵심에 있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YWCA에서 처음 공적인 설움을 떼셨지요?

한국여성개발원 부총재로 - (1980년, 1981년, 1982년)
70년대 여성, 1980년대, 1981년, 1982년

홍 <박영숙을 만나다>...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구속자가족협의회 활동을 같이 했던 이종옥 님의 증언인데요..
“만 선생님 집은 아지트였어요. 당시에 수유리 박선생님 집 마당을

밥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4.19가 되면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수유리로 모여들었어요. 김대중, 김영삼,
함석헌 씨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하는 교수들까지. 어떨 땐 100
명도 넘는 그 사람들 아침을 박선생이 먹었어요. 참 손님 대접도 임
청 했어요. 한 때는 김밥을 300줄 썬 적도 있었어요. YH때는 현장
에도 가고 동아두위에도 죽 쑤어 갖고 다니면서 기자들을 위로했어
요.” ...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박: 이쁘게 먹기

...박: 인본가라...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홍: 또, 기생관광을 이슈화시켰는가 하면, 부천시 성고문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투쟁을 하셨는데... 이런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박 이사장님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초반 역사를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초로 생명문화창조운동을 시작하셨죠?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생명문화창조운동 소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홍: 그래선가요? 아직도 2000원짜리 BMW를 타고 다니신다구요?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2000원짜리 BMW 실명과 함께 가질 수 있어도 안 가진다..)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홍: 활동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홍: 여성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정치계로 입문하게 되셨
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셨나요?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

홍: 그런데... 별명이 저승사자였다구요.. 책에 나와있던데.. 보좌관을 지낸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박: 박선생이 박선생이로

이상터님의 증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다른 의원들은 그냥 써 준거를 읽는 거에 반해, 박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챙기는 스타일이예요. 집의서를 만들 때도 만족할만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원실에서 아예 밤을 샜지요. 사람은 부족하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좌관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건, 한 사람의 전문직 여성으로, 선배로 존경했거든요. 박 선생님은 특히 국정감사장에선 끝내줬어요. 확실하게 조졌거든요. 적장의 목을 베듯. 오죽하면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문제를 파고 들어가 몰아붙이는데 그 때는 정말 쾌감이 일 정도였지요.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국회의원 세비가 210만원이었는데, 박 선생님의 경우, 절반은 당비로, 절반은 한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의 후원금으로 보냈어요. 그러다보니 조사활동에 동행하는 취재기자들한테 5천원짜리 식사밖에는 사 줄 수가 없는 실정이었죠. 다른 의원들은 최소한 만원짜리 밥을 사 주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기사들이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의성활동에서의 보람..특히 여성과 환경에 대한 입법활동에 주력...) 입법인이자 사회운동가의 자부심 (문화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이황화탄소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안, 팔당댐 콘크리트 채취 중지, 낙동상 폐놀 유출 사건 처리, 안면도 해파리장 백지화 등등... 환경에 대한 입법활동 뿐 아니라,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윤락행위방지법', '에이즈 마약 법안' 등.. 주로 여성과 생명에 관련된 법안 개정에 힘쓰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한국정당여성연맹(모임)*

(여성의 정치 참여 독려...)

그런데 정치를 그만두시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네요? 그 때 연세가 화갑을 넘겼을 때였잖아요!!

4.

나

○

전남대학교 환경대학원 (2008-2011)
내셔널 유산 관리 전담직원이었던 환경관리 예산위원 - 환경대학에서 환경영향평가 학과장
환경대학 자치위원 임명 (36차의정회, 40차의정회) (한정영 = 30)
(국회환경정책) 귀국후 환경영향평가 소장직 복직 (1992학년도 이후 환경)
1993 Manchester Global Harmon
1995 국민환경운동본부
2002 지구환경총회

박 (유학을 간 이유와 공부 분야.. 귀국해서 환경단체 설립..) / 1995 국민환경운동본부
위촉직 환경감독관 (서울특별시 환경위촉직)

홍 다시 시민 사회단체로 돌아오신 거네요. 하지만 환경분제는 하루아
침에 개선되기도 어렵고,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
요.

박 (녹색 거버넌스와 풀뿌리 운동...)

홍 여성환경연대에선 희망무역이라는 것도 새롭게 시작했죠?

박 (공정무역과 그루...)

홍 후세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후세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또 설립하셨죠. 한국여성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
는 곳인가요?

박 (모금과 배분)

홍 보통 사회단체에선 정부 보조금을 아예 받지 않는다거나 하는데.. (정
부와 기업체에서 모금을 한다는 게 신선하네요?)

박 (그 이유와 배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이제 사회통합
적인 문제다..)

홍 사실,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박 그렇다. 기부문화 정착의 필요성과 기부방법 등..

홍 그런데... 지난 6월에 촛불시위에도 나가셨다면서요!!

박 (촛불거사는 여성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일..)

Long Tale 시제
80%의 참여가... 상황의 변화... 그리고...
미국인들 - 세계인이 많았...

홍 칠순을 훨씬 넘기시고도, 현역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이미영 님의 말을 책에 나온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권력 때문에 버리 숙이지 않는 점도 배울 점이지만, 무엇보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진화를 하는 분이라는 게 놀라워요.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욕심 넘어 시작한 일을 젊은 사람들과 발맞추어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박 선생님이 가장 독특한 점은 정치인이었으면서 다시 시민단체로 돌아와 올인하는 삶을 사는 고지요. 그런 분, 참 드물잖아요. 웬만하면 자기 영역을 만들어 안주하는데 선생님은 그와는 반대예요. 사랑의 친구도, 여성환경연대도, 한국여성재단도 처음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지만, 단체가 혼자 자생할 시기가 되면 슬그머니 몸을 빼 또다른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책에 보니까..내년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실 거라고 하던데...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궁금한데요?

박

(앞으로의 계획...)

100인생시대
3월 1기, 2기, 4기, 5기
5월 1기, 2기, 3기, 4기, 5기
6월 1기, 2기, 3기, 4기, 5기
7월 1기, 2기, 3기, 4기, 5기
8월 1기, 2기, 3기, 4기, 5기
9월 1기, 2기, 3기, 4기, 5기
10월 1기, 2기, 3기, 4기, 5기
11월 1기, 2기, 3기, 4기, 5기
12월 1기, 2기, 3기, 4기, 5기

홍

책 부제가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이던데..
현역으로, 박 이사장님의 삼모작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인사.....

홍

한 인터넷신문기사 제목에..

“박영숙의 몸과 삶은 우리사회의 역사다”...이렇게 나와있었어요.

<박영숙을 만나다>...!!

우리사회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분의 삶이 지도이며, 유용한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들 뿐 아니라..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퇴직 후의 현역을 꿈꾸는 실버 세대에게도

튼튼한 응원이 돼 줄 것 같습니다...!!